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5.12 28

[가해] 제2517호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마태 2,15)

## 오늘의 전례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집회 3,2-6.12-14

###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핫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콜로 3,12-21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음** 마태 2,13-15.19-23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 요셉의 집 배식봉사(12.18.)



소리주보  
QR코드

## 주일의 강론

성정하상바울로성당 주임 |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가정

가정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아닌 혈연과 각자의 원의에 따른 선택이 아닌 필연에서 출발하는, “좋아도 싫어도 그래도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이고, 당연히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치들이 해체되면서 가정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즉, 가족 안에서의 관계보다 사회 안에서 주어진 기능이 우선시되면서, 가족은 그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전 대가족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을 고집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의 정체성마저 흐려진다면, 지나친 비약일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생을 마감하는 것도,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실로 여길 뿐, 그 소중함까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가정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정이 직면한 도전에 마리아처럼 용감하고 침착하게 맞서며 하느님께

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30항)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태하신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까지 수많은 풍파를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여정을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신앙인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느님의 본질과 무관하지 않은”(“사랑의 기쁨”, 11항 참조) 가정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구성원들의 모임 그 이상의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가 가정의 가치를 축소하고 부정할수록, 신앙인의 가정은 오히려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 소중함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정은 기능에 따르는 사회 제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가정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 ■ 말씀 KEY WORD

## 나타나다. 비추다. (파이노. φαίνω)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성가정에게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다’라는 동사는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그리스말 원문은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을 굳이 현재형으로 말하는 이 문법적 선택을 두고 학자들은 ‘역사적 현재형’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독자의 눈앞으로 당겨지는 효과를 만드는 서술 방식이지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인간 역사 안에서 위협과 박해의 대상이 되셨고, 그 긴장은 훗날 십자가의 수난에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수난의 자리이지요.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님 역시 당신의 부활로 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공생활의 의미를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압축해서 담아냅니다. 구원과 해방의 길은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안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 배식 봉사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와 교구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를 비롯한 교구청 사제단은 12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을 방문해 약 200여 명의 배식 및 설거지 봉사를 했다. 예수성심시녀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 요셉의 집은 1989년부터 노숙인과 독거노인, 쪽방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 지산성당 나눔 곳간

지산성당(주임 : 최경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은 12월 12일(금)부터 24일(수)까지 나눔 곳간을 진행했다. 구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시작된 이 행사를 통해 작년에는 생필품과 기초의약품 세트 300개를 준비했고, 올해는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 200채를 준비했다. 최경환 주임신부는 “코로나 시기 때 교구사회복지회의 지침에 따라 ‘나눔 곳간’을 처음 접하게 됐고,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의미로 교우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지산성당 신자들은 해마다 나눔 곳간 운영을 위해 미리 기금을 마련해 물품을 준비한다. 그렇게 준비한 이불 200채를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 각 50채씩, 그리고 각 구역 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나눔 곳간 실천 후 남은 기금은 일 년 내내 ‘구역사랑나눔’이라는 이름으로 구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단체 또는 지역민(미혼모 또는 털북민자녀) 등에게 후원한다. 또한 지역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지역 관공서도 방문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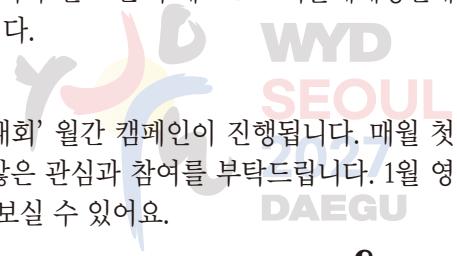
### 1.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를 위한 기도의 날

우리 교구의 모든 본당과 기관은 1월 첫 주일 미사를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를 위한 지향으로 봉헌합니다. 1월 미사 지향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를 위하여**”입니다. 아울러, 미사 전 또는 후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를 함께 바쳐주세요. 묵주 기도 봉헌 운동도 계속됩니다.

### 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교구 월간 캠페인 안내

2026년 한 해 동안 교구 평신도위원회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월간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매월 첫째 주 천주교대구교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업로드 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영상에서는 대주교님과 교구 총회장님 그리고 교구 청년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들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운동(2025.8.1.~12.19.) : **11,159,859**단



## 백년의 기억, 천년의 희망 ③

## 신나무골에서 대구대목구까지

서울대목구

대구대목구

1831년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이후에도 경상도 지방의 신앙은 여전히 숨어 있었고 박해와 피난, 은둔과 비밀 성사가 반복되는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최양업 신부가 충청·전라·경상도를 넘나들며 공소들을 세우고 신자들을 보듬던 길 위에는 이름 없는 교우촌들이 희미한 불빛처럼 살아 있었고, 리델·두세 같은 선교사들이 그 불빛을 따라 오래도록 걸음을 옮겼습니다.

1882년부터 경상도 전역을 책임지게 된 로베르 신부는 매년 43개 교우촌을 순회했고, 사제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2천 5백여 명이 넘는 신자들을 돌보며 성사와 교리를 전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1885년 겨울, 마침내 박해 속 피신처로 자리 잡은 신나무골에 정착한 로베르 신부는 블랑 주교에게 “경상도 신자들 사이에 정착했습니다. 사제관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고 보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구본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으며 곧 대구·경북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신자 수가 급격히 늘자 로베르 신부는 1888년에 대구 읍내 쪽에서 가까운 새방골로 거처를 옮겼고 이 시기에 새방골과 신나무골, 남산공소에 비밀 교리학교를 세우며 선교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알려진 그의 활동은 박해의 잔재를 깨워 1890년 대구에서 일명 ‘교안 사건’이라 불리는 충격적인 봉변을 불러왔습니다. 성탄절 날, 70~80명의 불량배 무리가 몰려와 새방골 사제관을 부수고 하인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대구 민심을 돌려놓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서양 신부’에 대한 호의는 대구 읍내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1891년 말 로베르 신부는 남산공소(현 주교좌계산성당 자리)로 거처를 옮기자 해마다 수십 명의 성인이 세례를 받고 예비자가 생겨났습니다 “이삭을 주워 묶었는데 138명이나 되는 성인 영세자가 생겼습니다.”라는 그의 사목보고서는 신앙의 불꽃이 대구 전역에 번져갔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무렵 조조 신부가 부산본당을 세우고, 빠이아스 신부가 가실본당을 설립하며 경상도 북부·대구·남부를 잇는 선교망이 완성되었고, 대구본당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교세는 조선대목구 전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되었고 뷔텔 주교는 교황청에 조선대목구를 서울과 남부로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리며 “새 대목구의 이름은 대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건의했습니다. 로베르 신부가 신나무골에서 첫 발을 내딛고, 새방골을 거쳐, 남산공소에 뿌리를 내린 흐름은 사실상 조선 남부 교회 구조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1911년 4월 8일, 교황 비오 10세는 조선대목구 남부 지역을 분리하여 대구대목구를 설정하고 드망즈 주교를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나무골의 한 초가집에서 조용히 시작된 대구의 신앙은 새방골의 비밀 교리학교를 지나 대구 도심의 남산공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번져갔고, 마침내 대구는 조선 남부 교회의 중심으로서 독립된 교구가 되었습니다.

*l'attaque à Taiden, à la descente du train à Kuk-  
tow où M. Kucz arrive dans la nuit de vendredi à  
lundi et que l'autobus arrive au matin pour chez le Dr. Vermeil.  
Il dit que le Dr. Vermeil allait au peu mieux -  
pour me recevoir, il paraît assez défaillant mais  
plus, mais il très faible il ne pourrait supporter le voyage  
de taïkou je pense qu'il n'a pas de temps, il pourra  
ne pas accompagner aussi.*

믿음의 길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8년)

## 주교 성성 축하

*Mercredi 5 Juin - Ce matin, j'ai fait appeler le vicaire*

### 6월 8일(토)

오늘 저녁에는 일본인 의사가 왔고 나는 그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병은 맹장염이라고 한다. 1주일 전에는 신부를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뤄카 신부가 나와 동행할 것이다. 무세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 상하이와 페이킹에 대체로 건강이 좋은 58세 남자의 맹장염 수술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다. 결정은 대구에서 하게 될 것이다.

### 6월 9일(일)

강론, 미사,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강복을 하고, 명도회에서 강연을 했다. 그리고 나의 피정이 끝났다.

### 6월 10일(월)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베르모렐 신부와 헤어졌다. 뤄카 신부가 오늘 새벽 4시에 대구역에 도착했고, 투르뇌, 김 요셉(金紋玉) 신부들도 같은 기차에 있었다. 무세, 소세 신부들이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녀들이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와서 나의 성성 축일을 축하했다. 대구에 와 있는 수녀들도 나의 방에 와서 축하해 주었고, 신학생들은 저녁 식사 후에 축하해 주었다.

### 6월 11일(화)

학생들과 고아들의 방문, 선물. 점심 때 대구의 모든 선교사들이 식사를 같이 했다. 매우 훌륭한 축제였다.

### 6월 12일(수)

전보로 예고한 베르모렐 신부가 뤄카 신부를 동행하고 왔다.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왔다. 수술의 성공률은 2명에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25일 동안의 주사로 장을 거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회복시켜 수술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리 조심을 하면 재발의 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 6월 13일(목)

지금까지 제일 더운 날이다. 30도 5분.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드망즈 주교 일기』(1987)



## 전례는 '마침'입니다

- 미사 후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 전례의 은총을 삶으로 이어갑니다.



전례의 해를 맞아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월간 실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주간 교구 일정

	선종 사제	미사 안내	교구 행사
12 <b>28(일)</b>			2025년 정기회년 폐막미사, 10:30 범어성당 학생 주보기자단 월모임, 11:00 교구청 별관
<b>29(월)</b>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00 범어성당	
<b>30(화)</b>			대품피정, 26년 1월 5일까지 한티 피정의 집
<b>31(수)</b>			세례자요한 경당 축성식 및 교구청 종무미사, 10:30
<b>1 01(목)</b>			
<b>02(금)</b>	김보록 바오로 신부 (1922년 1월 2일 선종)		교구청 시무미사, 09:30 교구청 세례자요한 경당

## ■ 제25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

### 생명 수호가 선물하는 참평화

- 가정은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의 담화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26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2026. 1. 6.(화) 10:00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빠들의 신앙충전 피정 - 2기 **아빠들의 가출 페스티벌**

기 간 1.31.(토) 14:00~2.1.(주일) 14:00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대 상 초·중·고 자녀를 둔 아빠(선착순 20명)

마감 1.21.(수)

피정비 10만 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 ■ 수도회 | 피정 알림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연말연시피정(한라산): 12.31~1.3  
 제주순례: 1.9~11 / 1.23~25 / 2.6~8  
     2.27~3.1 / 3.5~8 / 3.12~14  
 한라산 영실: 1.15~18 / 1.30~2.1  
 문의: 면형의집, (064)732-4702

##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체신심 피정

일시: 1.3(토) 9:00~12:00  
 장소: 현풍성당, 615-2221  
 내용: 미사, 강의, 성체조배, 성체강복  
 문의: 교구 성체조배회, (010)3505-2599

## 바오로딸 기도 / 피정 프로그램

도심 속 하루피정: 1.3(토) 13:00~17:00  
 화요 성체조배: 1.6(화)~4주간 15:00~16:00  
 음악과 시가 있는 영상 피정:  
 1.7(수)~4주간 14:00~17:00  
 신청: (010)6681-5185

**초정성령회관 1박 2일 신년축복 성령대회**  
 기간: 1.10(토) 14:00~11(일) 14:00  
 장소: 초정성령회관, (043)213-9103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 1박 2일(3식)  
 대구버스: 조명자, (010)2321-9426

**배론성지기도학교 기획 피정(금 저녁-일)**  
 1.16~18 박현민 베드로 신부(수원교구)  
 2.20~22 강우일 베드로 주교(제주교구)  
 3.20~22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4.2~5 성주간 피정 (3박 4일), 기도학교  
 문의: 기도학교, (043)651-4563

**2026년 꽃동네 젊은이 피정 '함께 걸음'**  
 기간: 1.17(토) 10:00~18(일) 17: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영성원 / 5만원  
 대상: 고 2학년~만 39세 젊은이  
 문의: (010)5571-2516 형제회,  
     (010)9894-1973 자매회

## 7차 몸기기도 With 성경 통독 피정

기간: 2.3(화)~11(수)  
 장소: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본원(안동)  
 대상: 말씀을 통해 하느님 위로를 받고 싶은 분  
 문의: (010)3360-9817

## ■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봉사자 모집**  
 분야: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약사  
 문의: 256-9494  
 홈페이지: <http://sungsim94.or.kr>

## 앞산밑 북카페 핫팩 특강

일시: 1.2(금)부터 매주 금 11:00(5회)  
 주제: 삶을 위한 죽음 묵상  
 강사: 최의정 신부  
 ※ 평일 매일 미사 10:30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첫토요 성모 신심 미사

일시: 1.3(토) 10:00 켈기도, 11:00 미사  
 장소: 성모당  
 미사: 박광훈(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3127-4273

##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

424차 ME주말: 1.16(금)~18(일)  
 425차 ME주말: 2.27(금)~3.1(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 문의: 983-0521



▶ ME주말  
소개



▶ ME주말  
신청

##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모집

모집대상: 초4~중1(26년도 기준)  
 모집기간: 2.26(목)까지  
 문의: (010)8590-6148

##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823-1970

## 가톨릭문화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교육

무시험 국가자격증 취득 기회  
 개강: 3.6(금) / 19세 이상 누구나  
 주말반: 금요일 18:30~22:20  
     토, 일 13:30~21:50  
 문의: (010)2754-4404 (언제든 환영)

## 센별 성서 모임 방학 특강

주제: 성경의 하느님 자비와 인간의 죄  
 개강: 1.8(목) 10:00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명동)  
 문의: (010)5726-1733

## 나를 돌보는 시간, 힐링테라피

기간: 1.19~3.30(월) / 1.22~3.26(목)  
 시간: 10:00~13:00 / 14:00~17:00  
 비용: 2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 ■ 일반 | 기타 알림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29(월)~31(수)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 상담심리)  
 문의: (043)270-0100, 0109

### 성 베네딕도의 영적가르침

1차: 2.11(수) 15:00~12(목) 13:00  
 2차: 3.4(수) 15:00~5(목) 13:00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12만원  
 문의: (010)6791-0071 (문자문의)

### 마리아학교 2월 온라인 줌반 수강자 모집

기간: 2.12(목)~8.2(일), 매주 목 20~22시(6개월)  
 내용: 성모님에 관한 체계적인 배움,  
     33일 봉헌  
 접수: 서울마리아학교, (010)2724-4819  
 참고: 어디서나 폰으로 수강 가능

###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원서접수: ~2.20(금)까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 그리스도의례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특별피정: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기간: 14박 15일  
 문의: (010)5735-4578

## 교구 | 대리구 알림

### 1월 기도와 치유미사

일시: 1.2(금) 19:30

장소: 신청 후 개별 안내

대상: 가족 구성원을 사별한 천주교 신자

진행: 연도 후 미사 봉헌(고해성사 가능)

신청(필수): 가정복음화국, (010)9461-3077

###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손병일(파치피코)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 시설 | 기관 알림

###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캘리그라피,

합창교실, 성가반주오르간, 성인모래치료,

성가반주 오르간, 미술치료, 가야금 성가, 서양화, 수요목객, 피아노, 제대꽃꽂이, 발성법, 가곡과 성가 / 신청: 254-6115

### 병인순교 160주년 기념

#### 이콘특별기획전

조선왕조 치하 순교 133위 중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외 27위

기간: 1.7(수)~31(토)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 대구가톨릭대학교

#### 故전석재 몬시뇰 기일미사 안내

일시: 1.7(수) 11: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교목처 교내성당

문의: 850-2526~8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일반검진,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 (8:00~17:00)

## 천주성삼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인공지능 3.0T MRI 도입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진료

중증외상센터 교수경력 전문의

척추 수술적 / 비수술적 치료

문의: 790-1000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2 튜르키예, 그리스 (12일) 498만원

3.2 영국, 아일랜드 (11일) 760만원

3.20 이집트 (10일) 525만원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12월 29일(월) ~ 1월 3일(토) 6:50, 16:50, 23:50 김현섭(요셉) 신부

**늘시원한 위대한 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애우구스티노  
  
**치 질**  
산격시장 앞 053-959-7175  
010-9597-7175

**강 좌 모 집**  
제대꽃꽂이반  
사범자격증반 ] 금·토 10~15시  
문의 010-3802-2107  
가곡·성가반·솔티종창반  
발성법 1:1 수업 (회, 수, 목)  
문의 010-2401-3792  
위치: 신학대학교 정문 맞은편

청소(건물·냉난방기·డクト·IT) 경비  
방역소독, 물탱크청소소독  
조경관리, 시설관리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www.hbdaegu.co.kr  
전순례(비비안나) 신원섭(바오로)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온리빛의원**  
원장 양기숙 (세례자: 요한) / 청라언덕역 9번 출구 앞  
**6층** **피부과** (053-248-0010)  
실리팅, 레이저, 필러, 보톡스  
**4층** **문제성 발톱 클리닉** (053-428-0010)  
화장, 내분비증, 무좀, 터는  
\*치료 목록에 한해 환불 및 보험 적용 가능  
**2층** **다람소아청소년과** (0507-1479-758)  
보험진료,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김 기 산 안 과**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대성빌딩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작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크림·로션·스킨·샴푸·세안비누  
듯정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곽재혁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지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출증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前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천주교 대구교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성요셉오양병원**  
수의이 아닌 애덕실천이 독특입니다  
매일마사·주일마사·봉사, 영성치료  
노인생활질·완화의료 전문요양  
내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한방과  
병원장 이 종 하(스테파노) 신부  
TEL 053)615-4871

**조 제 전 문  
세계로 약국**  
상담전화 053 652 1122  
이윤수(라파엘) / 이소담 (마리아)  
대구카톨릭대악병원 정문 앞

**도앤김연내과**  
주·야간 혈액투석 만성질환  
국가 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 외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미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민국의회 회의원/회사장 역임  
대한마을지도자신경학회 회장 역임  
파티미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053)942-8822**

**서울에이스 통증의학과**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 전문  
원장 권 일 치 (안드레아)  
치료과목: 통증의학과, 청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이양로 46 [신암동214-4] 2층 Tel 053 954 7582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통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김정범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전문의 김정범(대건안드레아) 동산병원 정년퇴임  
**JB**  
우울증 / 불안증/공황전증 / 불면증  
청라언덕역 9번 출구에서 동산병원 방향 도보 4분  
대구시 중구 달성로 26 | 2F ☎ 053-253-0600  
P 동산병원 주차장 이용 가능

**척추·어깨·무릎**  
**참조은 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흡(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